

87 수산업의 회고와 전망

머리말

어떤 산업이 발달하면 할수록 자꾸만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간다.

지금까지 가축을 사육하는 업을 통털어 축산(畜産)이라고 불렀고 또 소, 돼지, 닭의 발전을 축산발전이라고 표현하여 서로는 가장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나타내는데 하등의 이의(異意)가 없었다.

그러나 이미 선진국가에서는 이들 각각의 다른 가축은 상호간 시장경쟁상태에서 상호견제 산업으로 독자적인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축산업이란 막연한 표현보다는 구체적으로 쇠고기생산(Beef production), 우유생산, 돼지고기생산, 계육, 계란생산 등으로 분명하게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식육(食肉)시장을 놓고 누가 더 고기를 많이 팔 것인가를 위하여 상호간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더 소비자의 요구(needs)를 충족시키는가를 놓고 많은 연구, 많은 선전 등의 활동을 생산농가들이 스스로 돈을 모아서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전에는 축산발전이란 표현속에 소, 돼지, 닭을 모두 수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우유소비를 국가기관에서 하게 되면 다른 분야에서 항의하고, 소값이 계속 떨어지는 마당에 돼지고기 소비선전을 정부기관에서 한다면 또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게 나올 것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소비자의 요구도 까다로워지고 있다. 요약하여 보면

첫째로 소비행동의 복잡화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생활이 나날이 바빠지는 환경속에서의 간편화를 원하는 것과 동시에, 경제적인



한국종축개량협회
사무국장 박 신 호

여유로 인한 고급화, 개성을 중요시하는 개성화등의 복잡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는 소비자가 원하는 축산물은 건강에 좋고 안정성이 높아야 한다는 인식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성인병에 대한 축산물의 일부 잘못된 인식같은 것이 한 좋은 예가 될것이다. 농약이나 항생물질 공해물질의 잔류성등에 대한 반응이 대단히 민감하게 되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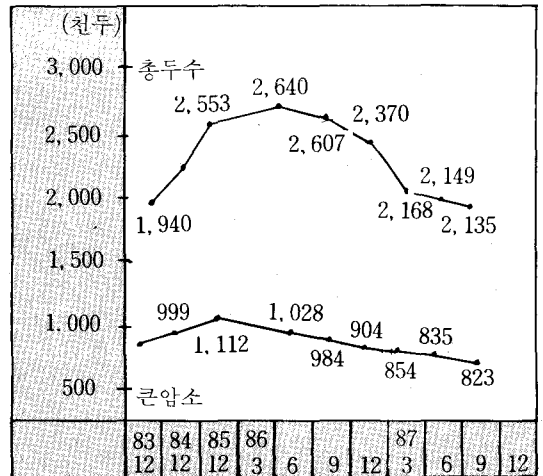
한편 나이 많은 층이 늘어나는 사회적인 현상은 보다 균형잡힌 식생활을 요청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내왕이 빈번해지고 쉬워지는 것으로 인해서, 식생활의 국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등, 우리는 분명히 축산분야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경제체제의 특수성으로 인한 축산물, 그중에서도 쇠고기수입의 압력에 처하고 있는 것이 소산업(畜牛産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될것이다.

소(畜牛)산업의 현 위치

최근에 축협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축산관측자료에 의하면 한우의 사육농가 호수는 888천호이고, 사육두수는 2,135천두라고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 그림에 잘 나타나 있다.

한우사육두수의 변동



1985년 6월의 2,653,000두나 1986년 6월의 2,640,000두에 비하면 약 51만두나 감소한 것이고 축산관측에서 보는 예측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사육두수가 줄어들것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축협에서 계속 떨어지는 소값의 안정을 위하여 수매사업을 벌여왔고, 또 어떻게하면 사육두수를 계속 감소시키느냐에 전력을 경주하여 왔기 때문에 사육두수가 이렇게 감소되고 있는 현상은 바람직스러운 것일런지 모르겠다.

사육두수가 이정도 감소하면 소값이 회복되리라고 전망해 왔는데 소값은 거의 일직선상에서 거의 움직이지를 않는다. 오히려 송아지 값은 더욱 떨어지고 있다.

눈을 잠시 돌려 양돈산업과 양계산업을 살펴보기로 한다.

돼지의 마리수는 1985년 6월의 2,800,000두에서 1987년 9월에는 무려 4,532,000두로 1,732,000두가 증가하였고 육계도 1985년 9월의 19,000,000수에서 1987년 9월에는 22,800,000수로 약 1,800,000수의 증가가 있었다.

돼지사육두수를 다음 도표에서 보면 알수 있듯이, 사육두수는 계속 증가하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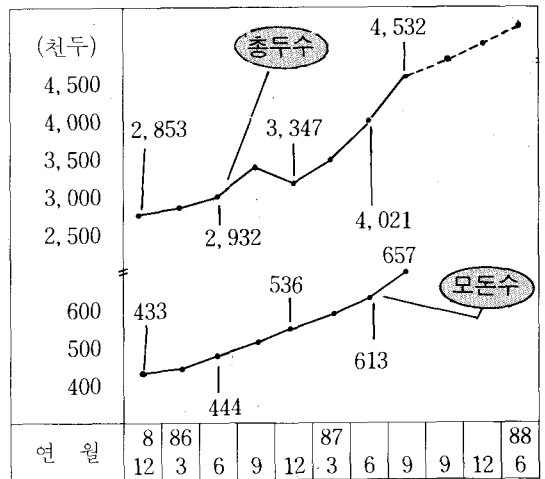
이 기간동안에 전체육류의 소비가 증가하여 온것도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쇠고기 시장을 돼지고기가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소의 사육두수가 51만두나 줄어들었음에도 쇠고기값(소값)이 올라갈 생각을 못하고 있는것이 아니겠는

소값이 좋아지려면 사육두수가 엄청나게 감소된 오늘날, 돼지고기나 닭고기 대신에 쇠고기를 찾는 소비자가 많아지거나 쇠고기의 수요창출이 별도로 더 있기전에는 가능성이 희박하게 된다.



가?

돼지두수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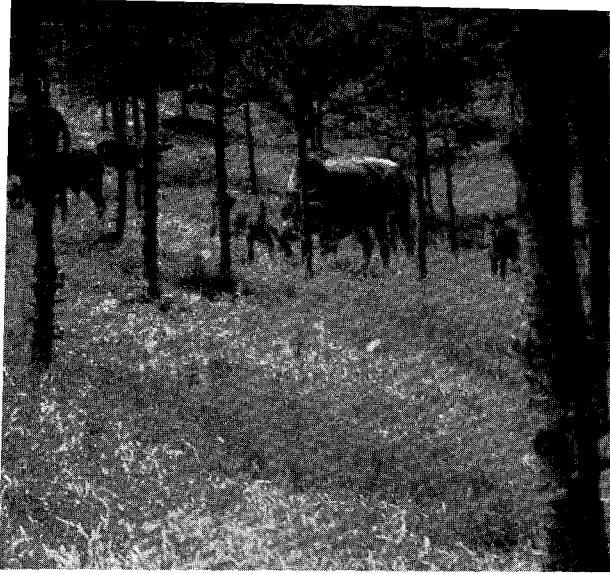


또한 육류소비흥보면에서도 쇠고기의 소비촉진은 돼지고기의 소비촉진을 따라가지 못하였다.

쇠고기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계속 소비가 자연적으로 늘어날것이라고는 기대할수가 없게 된것으로 보여진다. 소값이 좋아지려면 사육두수가 엄청나게 감소된 오늘날, 돼지고기나 닭고기 대신에 쇠고기를 찾는 소비자가 더 많아지거나 쇠고기의 수요창출이 별도로 더 있기전에는 가능성이 희박하게 된다.

소산업의 전망

얼마전에 우리분야의 전문지에는 한우 사육



기반이 위태롭다라는 제하(題下)에 3회에 걸쳐 긴급진단한 글이 발표된적이 있었다. 그 내용을 일일이 소개할수 있는 지면이 없기 때문에 커다란 부제(副題)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암소비육성행 · 출하체중 낮아져
- 다두사육농가 늘고 번식농가 줄어
- 매년 한우 도체중(屠體重) 낮아져
- 머지않아 쇠고기 부족현상 우려
- 요즈음이 한우입식에 가장 적기
- 2~3년후면 송아지 귀해진다

이상의 부제들을 종합하여 보면 한우의 사육두수는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우의 사육두수가 줄어들면 소값이 옛날과 같이 될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이 견해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육류(肉類)의 시장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쇠고기의 수요를 돼지고기가 메꿀수 있다는 현상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견해이다.

몇년전에 비하여 51만두의 사육두수가 줄어들었는데도 소값이 끄떡도 하기 않는 이유를 좀 더 깊이 분석을 하여보면 돼지고기의 소비는 오히려 줄고 있는 현상이 대변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불고기를 먹으러 갔다가 삼겹살을 먹어도 하등의 저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수요가 더 늘어날수 있기 때문에 소의 사육두수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데도 아직까지 소값이 뛰어 오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육두수는 계속하여 줄어들것이고 암소비육도 송아지값의 상승이 없는한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날 갑자기 송아지를 구하려는 수요가 좀 늘어난다고 웅성거리기 시작하면 송아지의 값이 오르기 시작할 것이고, 한번 오르기 시작하는 기세에 가수요가 붙으면 그 상승세가 가열될까봐 좀 걱정이다.

송아지가 모자란다고 느끼기 시작하였을때는 상태를 호전시키는데 상당한 애를 써야 할런지도 모르는 상태가 혹시 되지나 않을까? 그리하여 많은 도입육우를 들여왔든 상태로 다시 될까봐 걱정이 된다.

소산업의 발전방향

소산업, 그중에서도 한우사육이란 아직도 농가에서 부업으로 할수있는 유일한 축산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한우사육에 있어서의 번식산업은 이 농가부업형태에 의존하는 수 밖에는 도리가 없다. 한우사육이야말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가축의 사육이요 우리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축산이기 때문에, 힘이 좀 들더라도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할 책임도 있게 되는 것이다.

한우의 적정번식 두수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한우사육이야말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가축의 사육이요 우리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축산이기 때문에, 힘이 좀 들더라도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할 책임도 있게 되는 것이다.

부업형태로 한두마리의 암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서 송아지를 계속 생산하여 주어야 한다는 평범한 사실에 당면하게 된다.

그런데 생산된 송아지의 값이 너무 싸기 때문에 송아지를 생산하여 보아야 별로 소득이 없으면 이른바 번식사업은 날로 쇠퇴하여 가게 마련이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하여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송아지값이 떨어지면 보상하여 주는 제도를 마련하여 번식용 송아지의 지속적인 생산을 유도하고 있다.

여기에는 막대한 재정적 지원이 따라야 하기

암시하고 있다. 일본만 하더라도 국내 육류생산의 거의 3분의 2를 젖소가 담당하고 있고 영국같은 나라에서는 75%정도를 젖소고기나 젖소와의 교잡종생산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앞으로의 젖소의 역할 증대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수가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소산업은 중대한 전환기에 처해 있는 것이 분명하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쇠고기의 부족이나 송아지값의 폭등으로 쇠고기 수입의 문을 다시 개방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 수입의 물결을 조정할 수문 조절이 제대

전환기에 처한 소산업의 발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종자개량을 통한 한우의 질적 향상을 꾸준히 도모하는 것이다. 이미 이 산업은 상당한 진전을 보여 후대검정필 종모우가 선발되었고 계속되고 있으며, 보다 조직적인 사업의 전개가 요청되고 있다.

때문에 우선 재원확보가 무엇보다 어려운 과제로 남게 되나 반드시 한번은 생각을 해보고 넘어갈 과제라고 보인다.

쇠고기의 공급이 한우에서 부족한 경우 젖소에서의 공급을 생각하여 볼수가 있다. 그러나 이경우 고기생산은 어디까지나 우유생산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젖소사육두수의 증가는 건전한 우유소비의 증가가 전제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다행히 요즘에 와서 시유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 치즈의 소비도 증가하고 있어 젖소의 사육두수는 계속 증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로 안되어 수입의 물결이 거세지면 소산업의 그나마의 기반마저 흔들릴까 염려스럽다.

이러한 전환기에 처한 소산업의 발전에서 빼놓을수 없는것은 종자개량을 통한 한우의 질적 향상을 꾸준히 도모하는 것이다. 이미 이 사업은 상당한 진전을 보여 후대검정필 종모우가 선발되었고 계속되고 있으며, 보다 조직적인 사업의 전개가 요청되고 있다.

이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이제 조용히 앉아서 되새김을 하여 볼 때이다.

■ 우유소비홍보표어 ■

내가 마신 우유한병 가족건강 나라건강